

태국의 교육제도

태국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우리나라와 달리 태국은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탓에 상급학교 진학률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태국 아동의 중학교 진학률은 약 40%, 고등학교 진학률은 약 25%이며, 사업장이 위치한 깊은 산골의 진학률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경제적 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태국의 아동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을 도와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여자 아동의 경우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집안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 학생이지만 학업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상급학교 진학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학교의 접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에 상급학교가 없는 경우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기숙사가 있지만 모든 학생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사나 자취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학업을 위해 온 가족이 이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취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 정부는 아동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불어 밀알복지재단에서도 아동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축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후원으로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 1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 2016년 1, 5, 9월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날 아동에게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회원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 또는 1600-0966(회원전용번호)를 통해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변경된 주소지로 후원해주시는 결연아동의 소식이 발송됩니다.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기숙사 건설 프로젝트

깊은 산골에 있는 사업장의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8개의 각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하나씩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4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상급학교가 있는 지역에 타지 학생들이 몰려 기존의 기숙사로 모든 학생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숙사를 구하지 못한 아동은 이사비용과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진학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태국 사업장에서는 아동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숙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사이 기숙사 완공

많은 어려움 끝에 산사이 지역의 기숙사가 지난 10월 완공되었습니다. 1년 10개월이라는 공사기간 동안 현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고, 소음 때문에 주민의 항의가 빗발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기숙사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5명의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머무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멜라노이 기숙사 건축

2015년 7월에는 멜라노이 지역에서 기숙사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멜라노이는 3개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학생이 가장 많은 다룬식 학교에는 부족한 기숙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2016년 7월에 완공될 예정인 새 기숙사는 다룬식 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간지역이 고향인 카렌족 3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할 때까지 무료로 숙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학용품 지원



전 사업장에서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월 1회 아동에게 꼭 필요한 학용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부하던 아동들은 공책에 필기를 하며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용품을 지원받은 아동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동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새신발 지원



말창이 다 닳은 신발을 신고도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동들을 위해 새 신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다가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부모님의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한 명 한 명 사이즈를 조사하여 아동의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선물하였습니다. 아동들의 발을 보호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을 보내주시는 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담요 및 옷 지원



작년에 이어 2015년 12월, 아동들에게 따뜻한 담요와 겨울옷을 지원했습니다. 태국의 12월은 우리나라의 초가를 날씨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깊은 산골은 일교차가 크고, 연중 무더운 날씨에 입을 얇은 옷 외에 추운 날씨를 견딜 마땅한 옷이 없는 아동들에게는 겨울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번에 지원된 회원님의 온기가 담긴 담요와 옷 덕분에 아동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편지



태국 파견간사 김중준 드림

태국 아동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 안녕하세요! 태국 사업장에 파견되어 회원님과 결연 아동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중준 간사입니다. 회원님의 후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각종 학용품과 새 신발이 아동의 보물 1호로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새 신을 신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교하는 아동들의 밝은 모습에 저 또한 감사함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회원님의 사랑이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 수련회

2016년 4월 첫 주 8개 사업장의 아동들이 한 곳에 모여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

▶ 간식 지원

시장과 거리가 멀어 간식이 귀한 아동들에게 라면, 과자 등의 간식을 지원할 예정

COMING
SOON